

제습기 안전성 전면조사, 2개 업체 4개 모델 개선명령
- 시중 유통중인 주요 브랜드 27개 제습기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 -

-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현)은 선풍기 에어컨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철 가전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**제습기** 대해 **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**했다고 밝힘.
 - ※ 국내 제습기 시장규모(시장조사기관 GFK): '09년 112억 원 → '12년 1,529억 원 → '13년 3,500억 원
- 제습기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으나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**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*** 함.
 - ※ 개선명령: 안전인증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, 안전인증기관이 대상업체에 부적합 내용을 개선토록 요청하는 행정처분 (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관련)
- 이번 안전성조사는 **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브랜드 대부분을 포함해 27개 제품**으로 약 1개월간('04.7~8월), 감전보호, 온도상승, 누설전류, 절연내력, 전도 안정성* 등 시험이 이루어짐.
 - * 수평면에 대해 10도 기울어진 검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을 것
- 시험대상 27개 제품 모두 화재 또는 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전보호, 온도상승, 누설전류, 절연내력 등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.

- 1 -



MOTIE
 MINISTRY OF
 TRADE, INDUSTRY & ENERGY

- 그러나 **1개 제품**이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**한국소비자원**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한 **3개 부적합 제품*과 함께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개선명령** 함.
 - * 한국소비자원은 제습기 11개 제품에 대해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전도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한 3개 제품에 대해 국표원에 행정조치를 의뢰('14.8월)
- 국표원은 그 동안 여름철을 맞아 제습기 외 선풍기, 에어컨, 전기훈증살충기, 구명복, 선글라스, 수영복, 공기주입 보트 등 여름철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지난달 리콜명령* 함.
 - * '14. 7. 25. (금). 조간 보도자료(선풍기 2개, 공기주입보트 1개 등 8개 제품 리콜실시) 참조
- 앞으로도 국표원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*하거나 국민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크게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**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하여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**할 계획임.
 - * 전기매트, 전기방석, 전기냉온수기, 전기스토브 등 겨울철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('14.11월) 예정
- 또한 소비자가 제품안전정보센터(1600-1384) 등을 통해 불법·불량제품 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성조사 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.
- 국표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 확인하고 KC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도 사용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.